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 Preventive Tailored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Quality of Parenting of Low Income Famili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박 신 진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 수 이 영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Shin Jin Par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Young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preventive tailored early intervention program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quality of parenting for low income families. The subjects were eighty five infants, aged 13 to 32 months, and their mothers. Of the 85 mother-infant dyads, 42 dyad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43 dyads to the control group. To prevent the risks of the adverse development of infants from low income families a tailored intervention program was created based upon the transactional model. This emphasized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and of the daily mother-infant interaction. The risk factors were assessed and progress monitoring was undertaken for the preventive tailored intervention treatment.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rogram, HOME, the NCAST Teaching Scale and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COVA, and the McNemar 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erformance and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on the scores from HOME, and the NCAST Teaching Scale and significant decrease and lower scores in the Parenting Stress Index(SF).

Corresponding Author : Shin Jin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792-2632 Fax: +82-2-928-6764 E-mail: bodenage@hanmail.net

* 본 논문은 2010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주제어(Key Words) : 예방적 맞춤형 조기중재(preventive tailored early intervention), 위험요인(risk factors), 진단도 점검(progress monitoring), 양육의 질(quality of parenting)

I. 서론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영아기가 전생애 발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규명해 왔다. 특히 발달에 불리한 환경을 조기에 발견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및 방법들이 제시됨에 따라 영아기 돌봄의 수준과 영아의 유연성은 발달의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족가치의 변화, 영아 돌보기 관찰 기회의 부족, 무분별한 조기 교육 열풍 및 복잡한 생활환경 등으로 영아 자녀들이 적절한 사랑과 관심, 경험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영, 2000). 생애 초기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일상의 경험들은 영아의 사회-정서, 언어, 인지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언어발달, 또래 관계, 학교 적응, 학업 성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발달에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조기 중재란 환경적 문제나 신체적 문제로 장래의 학교생활이나 삶에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 복지, 초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방적 의미의 개별화된 발달적, 교육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적응적인 부모 역할과 전반적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다학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Meisels & Shonkoff, 2000).

조기 중재가 아동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착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1960년대 주로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빈곤의 세대 간 세습을 끊고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상교육의 차원에서 조기중재가 실행되기 시작한 이래 초기 경험의 중요성,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다양한 맥락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방적 차원의 조기 중재가 실시되었을 때 아동 및 가족 전체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영아기 중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영아기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교육적, 지지적 중재를 통한 양육행동지원을 필수적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 중재를 통한 영아기 중재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특히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한 상호교류 모델(Transactional Model)에서 발견할 수 있다(Sameroff, 1993; Sameroff & Fiese, 2000). 상호교류 모델에 의하면 영아기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영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즉 사회-정서적 요구를 가진 영아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일상생활 동안에 얼마나 반응적 상호작용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가 건강한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어머니 반응성은 영아의 요구 및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전제로 한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은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애착(Ainsworth, 1972, 1990; van IJzendoorn, 1995), 언어(Bakeman & Adamson, 1984; Barresi & Moore, 1996; Dunham & Dunham, 1992; Tomasello, 1990; Tomasello & Farrar, 1986), 인지(Flavell, 1992; Kitzman, et al., 1997; Morisset, 1996; Morisset, Barnard, Greenberg, Booth, & Spieker, 1990; Olds, Henderson, & Kitzman, 1994; Rutter, 1985), 사회 정서(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 Kelly, Barnard, Morisset, & Patterson, 1996) 발달에 주요한 예측 변인이며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영아와 어머니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누적적으로 하게 되면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재발성 질환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Anastasiow, 1990; Mantymaa, 2003, 2006; Murray, 2007).

이는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취약할 경우 발달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근접발달 영역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다른 주변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영아기 조기 중재에서는 상호작용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중재에서는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반응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아동 발달과 사회-정서적 기능을 강화하는 관계 중심적 중재가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관계 중심적 중재 프로그램들은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두 세대 접근, 가정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은 영아 개인의 기질과 특징, 어머니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양육 환경,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체계 등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arnard, 1994; Belsky, 1984; Bronfenbrenner, 1992). 따라서 보호적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취약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줄여주기 위해 영아기 중재에 있어서는 개별 영아의 양육 환

경에 대한 정교한 탐색 과 분석이 중요시된다.

영아의 양육환경 중에서도 가정의 양육환경 수준이 영아의 발달을 제대로 촉진시켜주지 못하는 경우 양육관련 위험요인으로 간주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Bradley, 1995; Bradley, Caldwell, & Rock, 1988). 가정환경자극검사(HOME)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발달을 촉진시키는 가정환경 자극의 수준과 아동의 인지(Bradley & Caldwell, 1995; Wachs, Uzgiris, & Hunt, 1971), 언어(장영애, 1995; Elardo, Bradley, & Caldwell, 1979), 사회-정서(이영, 1980; Esterbrooks & Goldberg, 1985)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취약한 양육환경이 근접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머니들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을 교육하여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불화 등의 영향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에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Abidin(1992)은 부모의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자원의 활용정도가 부모의 양육관련 행동을 결정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과 경청, 사회적 지원, 양육정보 제공 등의 지지적 중재도 교육적 중재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취약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Conger & Elder, 1994; McLeod & Shanahan, 1993). 흔히 저소득은 가정의 생태학적 위험요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주변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Barocas, et al., 1991; Beckwith, 1999).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교육적 출발선이 불리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Ramey & Ramey, 1998) 초기중재 영역에서 위험군에 속한다. NCCP(2002)에서는 최적의 발달을 위해하는 요인들로 빈곤, 한 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출산 시 저체중, 장애를 가진 아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유아 중 50%가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15%가 세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아동의 뇌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빈곤이라고 하였다. 빈곤은 영아기 대뇌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Stevens, Lauinger, & Neville, 2009), 3세 무렵 언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지연, 곽금주, 2008), 특히 0~3세 사이에 빈곤을 경험한 경우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Duncan, 2003).

그러나 최근 사회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해외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적 압박감을 높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모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Burchinal & Vernon-Feagans, 2008; Eler & Lord, 1995; Raikes & Thompson, 2008).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거나 조절해줄 수 있는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대표적 변인으로 어머니 민감성, 온정성 및 언어촉진 활동 등을 들고 있다(Burchinal & Vernon-Feagans, 2008).

특히 영아기는 어머니를 통해 가정의 사회적 위험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크고 그 영향력이 부정적일 경우 장기적, 중단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아기는 발달의 유연성과 잠재력이 큰 시기이므로 적절한 중재를 통해 보호요인 등을 제공할 경우 개선의 효과가 더 크고 그 중재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 또한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Miles & Peck,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초기 중재를 영아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저소득의 부정적 영향은 여러 가지 개입 또는 초기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로 완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utter(1979), Masten 외(1999), Sameroff(1993) 그리고 Sameroff와 Fiese(2000)이 주창한 누적적 위험요인 모델(Cumulative Risk Model)에 따르면 가족과 연관된 발달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는 위험요인으로 저소득,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불안 또는 우울, 강압적 양육태도, 취약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낮은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불안정성, 소수인종, 아버지 부재,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사건, 돌봐야할 많은 가족 수 등을 들고 있다. 최근 누적적 위험요인 연구들에서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Gassman-Pines & Yoshikawa, 2006).

이때 특정 위험 요인의 종류 보다 위험요인의 수가 많은 것이 발달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위험요인 수가 4개 이상일 경우 아동의 사회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ameroff & Fiese, 2000; Sameroff, Seifer, Barocas, Zax, & Greenspan, 1987).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저소득층 또는 위험요인 수가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양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초기 중재 프로그램이 발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강조될 수 있다(Beckwith, 1999; Fox et al., 2003).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 연령, 학력, 양육 태도, 문화적 배경 등 부모가 처한 맥락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경향 역시 가정의 저소득은 위험요인을 동반할 가능성을 높이고(Beckwith, 1999; Duncan & Brooks-Gunn, 1997), 아동이 위험요인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정서, 인지 발달이 불리할 수 있다는 가정(Akerman, Izard, Schoff, Youngstrom, & Kogos, 1999; Moffitt & Caspi, 2001; Rutter, 1979; Sameroff et al., 1987)에 기초하여, 각 가정의 근접, 주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때 개별화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Response to Intervention: RTI)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특히 어린 아동의 개별화 일상생활 기반 중재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그 효과와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Van Der Heyden & Snyder, 2005).

반응적 접근에 의한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험요인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인의 긍정적 행동목록을 확장하고, 일상생활환경을 재구성해 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Carr, et al., 1994; Fox et al., 1997; Turnbull & Turnbull, 1997). 그동안의 일반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은 이론과 위험군의 요구에 기초하여 고안되었고 측정 자료들은 주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평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에서는 가족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점검에서 얻어진 자료들이 중재 계획 및 진행절차에 개별적으로 반영된다(Barnett, et al., 2006; Fox, Dunlap, Hemmeter, Joseph, & Strain, 2003). 특히 가족의 강점, 위험요인, 진전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부모와 중재자가 함께 가족의 요구에 부합되는 중재목표를 선정한다(Crowe, 2002; Greenwood, 2008). 이러한 가족참여는 부모들이 지닌 강점과 잠재능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으로(Morrison, 1978) 예방, 교수, 반응에 대한 맞춤형 양육행동지원을 가능하게 한다(Dunlap & Fox, 1997).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중위소득층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적 빈곤율이 2008년에는 14.3%로 상승하였다. 이는 외환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실제 빈곤아동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양극화 측면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민하영, 김경화,

2007; 정익중, 2009). 비록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 양육과 직결된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이 다른 위험요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해 왔다. 경제적 위기가 미칠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영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 등의 통합적 조기중재 프로그램들이 이미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어머니-영아를 일정회기별로 점검하여 다음 회기 처치에 각 가정의 점검내용을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예방차원의 통합적 맞춤형 조기 중재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각 가정의 양육환경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에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영아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양육관련 위험요인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강점 역시 개별적으로 강화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융통적 일상생활 기반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포괄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가정의 양육환경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는지의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가정환경 자극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주 1회 간격으로 8회 실시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배정은 연구 참여를 희망한 어머니-영아를 순차적으로 한 쌍씩 실험집단에 44쌍, 통제집단에 43쌍을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검사 이외에 일상생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활동을 고안하여 4회의 진전도 점검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과정 중 진전도 정도와 개별적 진전도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이후에 양육지원에 관한 조인, 동영상, 교육적 중재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연구 설계를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표 2>와 같다.

<표 1> 연구설계

| 연구대상 구분 | 사전검사 | 실험처치 | 사후검사 |
|---------|----------------|----------------|----------------|
| 실험집단 | O ₁ | X ₁ | O ₂ |
| 통제집단 | O ₃ | | O ₄ |

O₁, O₂ : 사전검사 (가정환경 자극검사, 양육스트레스 지표, NCAST 상호반응적 교수 척도),
 O₃, O₄ : 사후검사 (가정환경 자극검사, 양육스트레스 지표, NCAST 상호반응적 교수 척도)
 X₁ : 실험 처치 (8회의 개별화 초기 중재 프로그램 실시, 1회의 배경 점검, 4회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지표에 의한 진전도 점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7년과 2008년도 서울시 소재 J 보건소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았던 어머니 및 2010 영양플러스 교육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머니들 중 중재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어머니와 그들의 영아 자녀 총 85쌍이었다. 이 중 실험집단 42쌍의 어머니-영아, 통제집단의 43쌍의 어머니-영아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절차

1)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이면서도 예방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첫째단계에서는 국내의 조기중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부모교육 문헌을 통해 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특히 관계 중심적, 예방적, 개별화 중재 프로그램들을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NCAST(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과정을 이수하고 NCAST 중재도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양성 자격(NCAST Instructor Certifi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 Center on Human Development and Disability)을 2008년 4월에 취득하였다. 둘째단계에서 문헌고찰과 현장훈련 등을 거친 후 NCAST자료를 기초로 맞춤형 초기 중재 프로그램 모형 시안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교육적, 지지적 중재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시안을 가지고 일반 어머니-영아 및 위험요인을 가진 어머니-영아를 대상으로 4회기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박신진, 2008). 셋째단계에서는 예비연구(박신진, 2008)의 결과를 토대로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표 2> 연구진행 절차: 시기별 평가와 측정 도구

| 평가영역 | 측정영역 | 측정도구 | 사전검사 | 프로그램 회기 | | | | | | | | 사후검사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진전도 점검 | 위험요인, 강점, 취약점 점검 | 개인별 배경점검표 개별화 중재계획표 | ○ | | | | | | | | | ○ |
| | 어머니-영아 일상생활 상호작용 | 부모-자녀 상호작용 지표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효과검증 | 가정환경자극 | 가정환경자극 검사 | ○ | | | | | | | | | ○ |
| | 어머니-영아 과제놀이 상호 작용 | 상호반응적 교수척도 | ○ | | | | | | | | | ○ |
|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지표/단축형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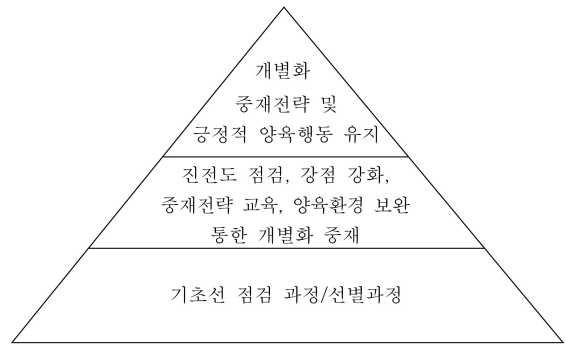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85, 빈도(%))

| 구 분 | | 실험집단 n = 42 | 통제집단 n = 43 | |
|------|------------------|----------------|----------------|-----------|
| 경제수준 | 저소득1층 (기초수급자) | 3(7.14) | 0(0) | |
| | 저소득2층 (차상위) | 26(61.90) | 25(58.13) | |
| | 저소득3층 | 13(30.95) | 18(41.86) | |
| 어머니 | 연령 | 26~30세 | 6(14.28) | 5(11.62) |
| | | 31~35세 | 24(57.14) | 34(79.06) |
| | | 36~40세 | 12(28.57) | 4(9.30) |
| | 초졸 | 초졸 | 1(2.38) | 0(0) |
| | | 중졸 | 2(4.76) | 0(0) |
| 학력 | 고졸 | 24(56.3) | 28(65.11) | |
| | 대졸 | 15(35.71) | 13(30.231) | |
| 아동 | 성별 | 남자 | 19(45.23) | 21(48.83) |
| | | 여자 | 23(54.76) | 22(51.16) |
| | 연령 (단위:개월) | 13~24개월 | 30(71.42) | 24(55.81) |
| | | 25~34개월 | 12(28.57) | 19(44.18) |

맞춤형 예방중재 프로그램'의 구체적 회기,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참여 및 배경점검, 진단도 점검 등을 반영하는 개별화 실시절차와 진단도 점검을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적 중재 활동 내용은 Promoting First Relationships(Kelly & Zuckerman, 2003) 프로그램과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에 근거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 지표(IPCI)를 진단도 점검에 이용한 Building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rough Everyday Parent-Child Interaction(Baggett, 2007),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연세 영아 프로그램(이영, 김은기, 우현경, 2006) 등을 참고하였다. 지지적 중재 활동내용은 경청과 공감 및 어머니가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즉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원이 적은 저소득 계층 어머니들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중재와 더불어 지지적 중재를 제공하는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Booth, Mitchell, Barnard와 Spieker(198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육지식 제공, 신호 민감성 교육, 상호작용 훈련, 어머니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의 교육적 중재와 맞춤형 정보 제공, 경청과 공감의 지지적 중재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적, 지지적 중재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절차 모형이 개발되었다. Fox와 Dunlap(2003)의 교수 피라미드 모델(Teaching Pyramid Model for Supporting Social



〈그림 1〉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3단계 맞춤형 예방중재 프로그램 실시 절차 모형

Competence and Preventing Challenging Behavior)과 Walker와 Greenwood(2002)가 주창한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기초한 3단계 개별화 지원 모델(3-Tiered Model for Individualizing Services Based on Child & Family Needs)을 응용하여 3단계 개별화 진행 절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별화 진행 절차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기초선 점검 및 선별과정, 2단계 진단도 점검 및 개별적 강점강화 중재전략교육, 3단계 개별화 중재전략 실시 및 긍정적 양육 행동유지의 3단계로 구성되며 이때 각 단계의 시기와 절차는 가정의 특성에 따라 융통적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의 점검 결과들은 개별적으로 중재목표 선정 및 처치에 반영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자기 자녀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하고, 어머니의 일상생활 상호작용 중 강점을 강화하여 긍정적 양육환경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본 프로그램은 융통적인 3단계 진행 절차로 구성되며,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진행절차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실시

중재프로그램은 2010년 1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주 1회 총 8회기, 1회 실시 시간은 약 1시간 내외의 가정방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체계적 관찰자 훈련 및 상담의 기초를 교육받은 자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돕거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자녀 돌보아 주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조 연구자와 동행하였다.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애착, 기질, 언어발달과 관련된 시청각자료를 대어하거나 개설된 중재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하여 어머니 또는 부모가 함께 자료를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양육관련 질문에 응답하였다. 개별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식적 개별 상담 시간은 배정되지 않지만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거나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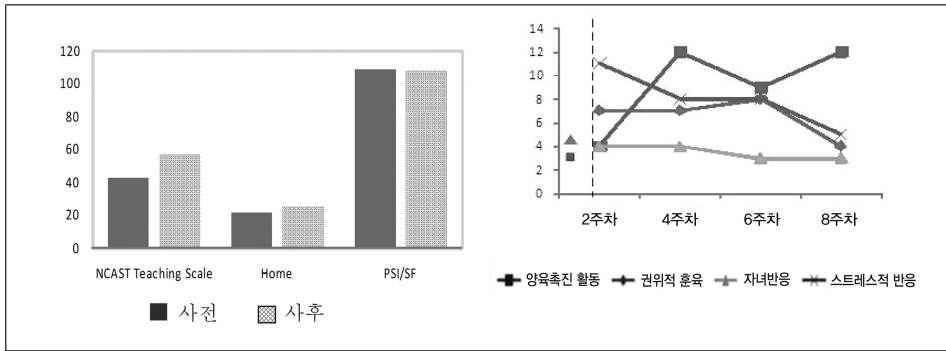
〈표 4〉 프로그램의 목표, 활동내용 및 개별화 처치 사례

| 회기 | 목표 | 활동내용 | 개별화 처치 사례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진과 가정의 친밀감 형성 · 가족의 위협요인 파악 · 상호작용 기초선 설정 | 레포형성, 베일리검사를 통한 발달점검 및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점검. 비디오피드백/과제 1 우리아이 하루일과 관찰표/부모교육용핸드아웃1 과제1 우리아이하루일과관찰표/부모교육용핸드아웃1 | 위험요인 파악: 5개, 가정환경자극(총점 17점/권위적 훈육점수3점), 양육스트레스: 113점 상호작용 기초선 설정 레포형성됨 어머니 관심사: 언어발달, 어린이집 적응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 · 비디오피드백 과정을 통한 상호작용 강점 강화 · 부모참여 중재목표 설정 |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자유놀이, 책읽기, 옷갈아입기, 제재상황의 상호작용), 비디오 피드백 과정: 어머니의 온정, 묘사적 언어사용의 부족 점검, 제재상황에서 다소 거친 목소리 점검. 우리아이 하루일과 관찰표 점검: 일과가 매우 불규칙함 부모교육용핸드아웃2/반죽 만들기 놀이하기 | 개별적 어머니 관심사에 따라 개별화 추가 자료 제공: 영아 어휘목록 제공: 일상생활 수용어휘 파악하기 상호작용 강점 강화: 적극적 참여 부모와 단기 중재 목표 설정: 자녀 수용어휘에 대한 묘사적 설명하기, 목소리 표정 부드럽게 하기, 자녀가 미소를 짓거나 질문하도록 유도하기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민감성 교육 · 부모참여 개별화 지원 계획 협의 · 점검된 상호작용 취약점 보완하기 · 중재 전략 점검 | 일상생활 상호작용 점검. 신호민감성 교육 실시, 반죽만들기놀이를 하며 묘사적 설명하기, 목소리표정 부드럽게 하기/ 가장 자신 있는 활동은 목록하기(물놀이), 가장 자신 없는 활동은 책읽기, 밥먹기/부모교육용핸드아웃3 | 합의된 단기 목표 수행을 위한 개별화 전략 가장 자신있는 활동 하루에 두 번 이상하기, 전략 짜기, 거울보고 부드러운 표정 연습하기, 아동요구 따라준 횟수 파악하기, 일과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 · 단기목표의 점검 · 일상생활 상호작용점검 방법 훈련 | 자유놀이, 책읽기, 옷갈아입기, 제재상황에서 상호작용점검: 어머니의 양육촉진활동 증진 특히 수용, 온정, 묘사적 설명 증진됨, 아동반응 변동없음. 신호민감성훈련 및 상호작용점검교육 /부모교육용핸드아웃4 | 부모와 협의하여 개별화 전략의 수정: 아동반응에 변화 없음, 아동의 미소, 질문 등의 반응이 나오도록 중재전략수정/일상생활 수용어휘 계속 파악하기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 강점강화 전략 · 위험요인 대체 양육행동 점검 · 언어촉진 교육활동 | 일상생활상호작용점검: 아동반응 변동 없음, 점검시 수월한 점, 어려운 점 이야기하기, 흥미유지방법, 아동의 요구 따라주기/그림 토스트 만들기/부모교육용핸드아웃5 | 수정된 개별화 전략 실시하기: 수용어휘 파악 및 아동 반응 이끌어 내기 힘듦, 일반적인 긍정적 양육촉진행동 하기로 개별화 중재전략 수정 상호작용 강점 강화: 스트레스해소 책략에 사용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 · 비디오피드백 과정을 통한 상호작용 강점 강화 · 진전도 점검을 통한 개별화 중재 프로그램 점검 | 1-5회기까지의 진전도 점검을 통한 개별화 중재 계획하기, 자유놀이, 책읽기, 옷갈아입기, 제재상황에서 상호작용 진전도점검/과제6 더 자주 상호작용 촉진활동하기, 일상생활상호작용 진전도점검/부모교육용핸드아웃6 과제: 일상생활활동점검 | 비디오 피드백 점검결과 반영: 어머니의 양육촉진활동 다소 감소됨, 어머니의 권위적 훈육 증가됨 단기목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동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진전도 점검결과 어머니의 양육촉진 행동 다소 감소함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 중재 목표달성 및 유지 점검 · 긍정적 부모행동 지침 강화 | 일상생활 진전도 비교, 일상생활 개별화 중재 실시. 전화기놀이/과제7 더 자주 상호작용촉진활동 및 일상생활상호작용 진전도점검, 우리 아이에게편지쓰기, 그림 토스트 활동/부모교육용핸드아웃7, 과제: 일상생활활동점검 | 진전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재 목표의 수정, 개별화된 중재 목표 설정: 긍정적 아동 반응 늘리기 보다 스트레스적 반응 줄이기로 개별화 목표 변경/스트레스 해소 책략의 고안 전화 또는 문자들을 통하여 더 자주 스트레스적 반응 줄이기 책략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연세 영아 프로그램 책자 제공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 중재 전략유지 · 긍정적 행동지침 강화 · 비공식적 부모-자녀 양육지원 체계 개발 능력강화 | 자유놀이, 책읽기, 옷갈아입기, 제재상황의상호작용점검. 비디오 피드백 과정: 진전도점검, 개별화 중재, 사진동영상CD준비,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연세 영아 프로그램 제공 | 개별화된 중재 목표 점검: 어머니의 양육촉진활동 다시 증진 됨, 어머니의 권위적 훈육 감소됨, 아동의 반응성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아동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현저히 줄어들 어머니의 언어발달에 대한 걱정 자연스럽게 감소함 |

후 상담을 추천하였다.

개별화 맞춤형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각 어머니-영아를 대상으로 배경점검, 위험요인 점검, 진전도 점검 및 상호작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과정을 거쳐

어머니와 공유하며 처치 과정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점검과정에 기초하여 연구자와 어머니가 각 회기의 중재목표를 선정하고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및 개별화 처치 사례의 예는 〈표 4〉와 같다.



〈그림 2〉 개별화 처치 사례에서의 진전도 점검 추이

〈표 4〉의 사례는 5개의 위험요인을 가진 어머니-영아 사례였다.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점검하면서 진행한 위 사례의 상호작용 진전도 점검 요약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2〉를 살펴보면 2~4 주차 기간에 어머니의 양육축진 행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아동반응에 변화가 없자 어머니의 양육축진 행동은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재 목표를 아동의 스트레스적 반응 줄이기로 바꾸고 개별적 절차를 고안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축진행동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권위적 훈육이 감소하였으며 아동의 긍정적 반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스트레스적 반응은 크게 감소하였다.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진전도 점검을 통해 중재 목표를 부모와의 합의하에 조정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유의하게 어머니 양육축진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총 42 각 사례의 어머니-영아에게 개별화 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4.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도구

1)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가정의 양육환경을 선별하고, 가정환경의 특성 및 양육환경의 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Caldwell과 Bradley (1984, 2003)가 개발한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를 이영 (1985, 2009a)이 번안한 '가정 환경 자극 검사(0~3세용)'를 이용하였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환경을 선별하기 위하여 백분위 기준 점수(이영, 1985)를 이용하여 가정환경자극검사 총점이 하위 25 백분위 기준점수에 해당할 경우 발달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정의 양육환경으로 선별하였다. 가정의 양육환경은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 상태',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

응'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문항에 '예'에 응답하는 경우 1점, '아니오'에 응답하는 경우 0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45점까지 이다.

검사절차는 가정을 검사자가 방문하여 어머니와 면접하면서 동시에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75이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0이었다. 가정환경자극 관찰자 간 신뢰도는 .90 이었다.

2) 상호반응적 교수 척도(NCAST Teaching Scale)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 반응적 교수 척도(NCAST Teaching Scale; Barnard, 1994)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NCAST 상호 반응적 교수척도는 Barnard에 의해 1978년부터 개발된 Nursing Child Assessment Project (NCAP)의 연구 결과로써 0~36개월 영아들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차원들을 포함하여 후에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도록 구성된 관찰 및 중재도구들이다. NCAST 상호 반응적 교수척도는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는 4개의 하위영역(신호에 대한 민감성, 괴로움에 대한 반응, 사회-정서적 성장 촉진 양육 행동, 인지적 성장 촉진을 위한 양육행동)과 영아 반응을 측정하는 2개의 하위영역(신호의 명확성, 부모에 대한 반응)에 총 73개 문항(어머니 문항 50개, 아동 문항 23개, 동시성 문항 32개)으로 예, 아니오의 이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은 구조화되지 않은 과제 놀이 교수 상황을 제시하고 직접 관찰 또는 비디오 관찰을 통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놀이 또는 작업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찰이 이루어지는 만큼 측정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치 않다. 문항의 '예' 응답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 질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2008년 4월 NCAST 중재도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양성 자격(NCAST Instructor Certification)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언어가 가능한 유아교육전문가와 의학 전문가에게 본 연구자가 번역한 문항을 역

번역하도록 하여 역번역본을 NCAST 교육 담당자에게 제시해 원본과의 번안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5로 나타났으며 6개 하위영역의 Cronbach α 는 .62~.83 이었다. 상호 반응적 교수척도의 관찰자 간 신뢰도는 .89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지표(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양육 스트레스 지표/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평소 부모 자신이 느낀 바를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점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의 디스트레스 영역이 36점 이상,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27점 이상,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36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 100점 이상일 경우 양육관련 위험요인으로 선별하였으며, 이때 프로그램의 실시로 총점이 90점 이하로 변화된 경우 취약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화 과정을 점검하여 프로그램 처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단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 총체적인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자 가정환경자극검사, 상호반응적 교수척도, 양육스트레스 지표 등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공분산분석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양육관련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위험수준이하로 감소시킨 정도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취약수준 집단을 대상으로 비율의 차이검증(McNemar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수준의 변화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가정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자극검사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사후검사점수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공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가정환경의 질이 유의하게 더 많이 향상되었다 ($F = 71.858, p < .001$).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 ($F = 25.166, p < .001$),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F = 15.687, p < .001$),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영역($F = 69.053, p < .001$)에서 가정환경자극 증진의 차이가 유의미 했으나,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 태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정환경의 질을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기준 점수의 하위 25%를 기준으로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집단만을 선별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취약수준에서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비율의 차이검증인 McNemar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 집단은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실험집단의 경우는 중재 프로그램 처치 후 1 가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정의 양육환경의 수준이 취약수준 이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은 가정환경자극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취약 집단에

<표 5>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가정환경자극검사 점수의 공분산 분석결과

(N = 85)

| 가정환경자극 검사 | 실험집단 | | | 통제집단 | | | F |
|-------------------|-------------|-------------|------------|-------------|-------------|------------|-----------|
|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
|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 3.40(.91) | 3.50(.86) | 3.49 | 3.05(.75) | 3.14(.83) | 3.12 | .122 |
|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 | 4.69(1.89) | 5.69(1.57) | 5.72 | 4.07(1.53) | 4.28(1.50) | 4.19 | 25.166*** |
|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 2.76(.73) | 3.00(.70) | 3.04 | 2.77(.97) | 2.74(.95) | 2.79 | 7.872** |
| 어머니의모성적 태도 | 3.38(.85) | 3.76(.88) | 3.85 | 3.05(.92) | 2.95(.87) | 2.99 | 15.687*** |
|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 4.95(1.17) | 5.14(1.00) | 5.13 | 5.42(.76) | 5.14(.99) | 5.12 | 3.101 |
|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 4.45(1.76) | 6.93(2.03) | 7.01 | 3.67(.92) | 3.98(1.16) | 3.99 | 69.053*** |
| 총점 | 23.64(4.68) | 28.02(4.43) | 29.98 | 22.02(3.25) | 22.23(3.44) | 22.30 | 71.858***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정환경자금 취약수준에 속한 사례 비율의 차이검증

| 가정환경 자극 | 실험집단 (n = 42) | | 통제집단 (n = 43) | | McNemar's χ^2 |
|---------|---------------|-------|---------------|-------|--------------------|
| | n | % | n | % | |
| 사전 | 13 | 30.95 | 15 | 34.88 | 31.06*** |
| 사후 | 1 | 2.38 | 13 | 30.23 | |

*** $p < .001$.

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변화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반응적 교수척도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더 많이 증진되었다($F = 58.086, p < .001$).

하위영역 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 측 영역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F = 47.854, p < .001$), 인지적 성장촉진 양육행동($F = 75.558, p < .001$),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양육행동($F = 28.611, p < .0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 측 영역의 경우 신호의 명확성($F = 13.781, p < .001$), 양육자에 대한 반응성($F = 14.113, p < .0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어머니-영아 동시성 반응점수($F = 16.044, p < .001$)도 실험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이 보챌 때의 반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3.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지표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간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되었다($F = 30.579, p < .001$).

또한 하위영역 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F = 51.281, p < .001$)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부모의 디스트레스' 영역($F = 27.583, p < .01$)에서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수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별히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더 취약한 사

〈표 7〉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상호반응적 교수 척도 점수 및 하위점수의 공분산 분석결과

(N = 85)

| NCAST 상호반응적교수척도 | 실험집단 | | | 통제집단 | | | F |
|-----------------|------------------|-------------|-------------|----------|-------------|-------------|-----------|
|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
| 어 머 니 | 신호에 대한민감성 | 6.79(1.75) | 8.45(1.45) | 8.53 | 6.57(1.11) | 6.43(1.21) | 47.854*** |
| | 아동이 보챌 때의 반응 | 8.14(1.35) | 9.05(1.25) | 8.87 | 8.83(1.61) | 8.74(1.67) | 1.121 |
| |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양육행동 | 8.19(1.33) | 8.48(1.25) | 8.61 | 7.24(1.28) | 6.90(1.08) | 28.611*** |
| | 인지적 성장촉진 양육행동 | 8.19(1.93) | 11.38(2.28) | 12.16 | 7.55(1.47) | 7.52(1.61) | 75.558*** |
| 영아 | 신호의 명확성 | 6.86(1.34) | 7.45(0.94) | 7.41 | 6.62(1.01) | 6.76(0.69) | 13.781*** |
| | 양육자에 대한반응성 | 5.90(1.34) | 7.50(1.42) | 7.57 | 6.05(1.17) | 6.50(1.31) | 14.113*** |
| 모-영아 | 동시성 반응 | 16.36(3.23) | 19.69(3.96) | 19.67 | 15.81(3.23) | 16.31(3.64) | 16.044*** |
| | 총점 | 44.07(4.72) | 52.31(6.79) | 53.26 | 41.86(7.70) | 41.86(8.06) | 58.086*** |

*** $p < .001$.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공분산 분석결과

(N = 85)

| 양육 스트레스 지표 | 실험집단 | | | 통제집단 | | | F |
|----------------|--------------|--------------|---------|--------------|--------------|---------|-----------|
|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사전 M(SD) | 사후 M(SD) | 교정 사후평균 | |
| 부모의 디스트레스 | 31.98(5.15) | 30.52(4.69) | 30.56 | 31.02(4.82) | 30.33(4.71) | 30.41 | 27.583** |
|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 23.81(8.20) | 21.57(6.25) | 21.49 | 25.65(7.82) | 25.09(5.56) | 25.11 | 51.281*** |
|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인식 | 30.00(7.04) | 29.69(8.50) | 29.99 | 30.42(4.83) | 31.77(4.05) | 30.62 | 1.831 |
| 총점 | 85.79(16.45) | 81.79(14.74) | 81.54 | 86.09(15.57) | 88.19(12.50) | 87.99 | 30.579*** |

** $p < .01$, *** $p < .001$.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취약수준에 속한 사례 비율의 차이검증

| 양육 스트레스 | 실험집단 (n = 42) | | 통제집단 (n = 43) | | McNemar's χ^2 |
|---------|---------------|-------|---------------|-------|--------------------|
| | n | % | n | % | |
| 사전 | 9 | 21.42 | 9 | 20.93 | 51.19* |
| 사후 | 6 | 14.28 | 9 | 20.93 | |

* $p < .05$.

례에서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율의 차이검증인 McNemar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중재 프로그램 처치 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위험 수준 사례수의 비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영어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의 취약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취약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영어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영어 자녀를 둔 가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결과를 토대로 효과 검증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가정환경자극 수준이 전반적으로 통제집단에서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 상태,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영역에서 가정환경자극 증진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가정의 양육환경이 위험수준이라 할 수 있는 기준점수 하위 25%에 해당되었던 가정만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통제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실험집단 어머니-영아 중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점수 하위 25%를 벗어나 가정의 양육환경 수준이 취약 수준 이상으로 유의하게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가정환경자극 점수의 증가점수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사례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의 경우 가정의 양육환경이 취약 수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환경 자극의 질에서 향상을 보이는 데에는 프

로그래의 교육적 중재 내용 중 자세히 설명하기, 부드럽게 반응하기, 영어 발달 및 행동 수준에 관한 지식 제공, 적절한 놀잇감 소개 등의 단기 교육적 중재가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육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점검과정을 반복하면서 상호작용 시 어머니 감점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누적적으로 강화한 프로그램 효과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aggett와 Carta(2007)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도 점검을 사용한 일상생활 부모-자녀 상호작용 촉진 중재프로그램 실시 결과 가정환경자극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Family Check-Up 프로그램(Dishion, et al., 2008)에서는 가정방문 시 가정환경자극 검사를 부모 참여의 준거로 삼아 긍정적 부모 행동 지침 점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환경 자극 점수는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해서도 수집되었으나 양육의 질, 권위적 훈육 등에 대한 위험요인 선별 점수로도 활용되었다. Ramey 외(2010)은 Abecedarian과 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아기 부터 중재를 받았던 청소년들을 중단 연구하여 가정환경자극, 위험요인, 중재 여부와외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영아기 초기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어머니의 양육의 질이 향상되었고, 향상된 양육의 질은 영아가 성장하여 낙오하지 않고 고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lmira Project, The Syracuse University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의 효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고 생의 초기에 양질의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영아기 초기 중재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향상된 양육의 질은 가족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요인이 확인되었으므로(Ramey, et al.,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추후 연구를 실시해 본다면 위 연구들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영어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이 통제집단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영역인 신호에 대한 민감성, 인지적 성장촉진 양육행동,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양육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적 중재의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 증진을 위한 부분들이었으며 상호작용 시 강점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호작용을 교정하려하기 보다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대체시킨 프로그램 효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디오 피드백과 진단도 점검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상호작용 훈련을 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영아의 경우에도 신호의 명확성, 양육자에 대한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영아 동시성 반응점수도 유

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상호작용 교육이 2시간 정도의 주 1회씩, 3~4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van den Bloom(1994)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CAST 상호반응적 교수척도를 이용한 신희 민감성 교육 및 반응적 상호작용 훈련을 비디오 피드백을 통하여 관계 중심적으로 실시했을 때 취약 일반 영아부모 뿐 아니라 계층 부모들에게도 반응적 양육을 고무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Kelly(2005), Brophy와 Gibbons(1999)과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처럼 짧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중재 효과를 보인 이유는 어머니가 받은 교육적 중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 모델의 진전도 점검을 접목시킨 개발 절차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아기는 특히 부모 및 성인이 아동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 자녀의 진전도 점검이 일상생활 상호작용에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Hemmeter, Ostrsky, & Fox, 2006; Greenwood, 2008) 역시 위와 같은 해석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반응적 양육에 대한 교육적, 지지적 중재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을 점검해 보고,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적인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어머니로 하여금 설명해 보도록 하는 내용, 즉 부모와 함께 진전도 점검을 실시해 보면서 어머니 스스로 일상생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모의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과 부모의 디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지표 점수의 감소가 실질적으로 양육환경 수준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취약한 사례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여부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중재프로그램 처치 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위험 수준 사례수의 비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양육스트레스지표 점수가 취약 수준인 100점 이상인 경우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각각 9사례였으나 중재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에서만 모든 사례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취약 수준 이하의 점수인 90점 이하로 점수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의 취약수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받은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범주에서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은 교육적 중재와 더불어 지지적 중재의 효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정방문자들이 어머니들에게 공감하고 경청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했을 뿐 아니라, 영아발달 지식 및 상호작용 훈련, 자녀 양육에 관한 개별화된 개인적 관심, 지역사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교육용 자료 및 만들기 자료 제공 등의 물질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피드백을 통한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평가적 지지를 제공했던 지지적 중재 효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 모델에 입각하여 일상생활 점검에서 몸무게, 수면 패턴, 최근 아파서 병원에 간 기록, 반응 패턴, 자녀의 근래 감각 능력 상태(시각, 청각 등), 최근 가족 구조(동생 출산, 이혼, 취업 등)에 변화가 있는지, 환경(이사, 유아원 변경 등),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를 쓰게 되었는지,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놀이 학습 자료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동물 원이나 공원 등 외출 활동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면서 일상생활 자녀와 상호작용 중 취약한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게 됨으로써(Crowe, 2002)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Head Start와 관련된 효과 연구에서도 12주간의 반응적 양육 훈련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어머니들이 Head Start 프로그램만 참여한 어머니들보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Early Head Start에서 기본 상담 교육을 받은 가정방문자들로 부터 영아기에 신희민감성 교육과 상호작용 중재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위험요인이 있는 가족 연구들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ACF, 2002; Baggett & Carta, 2007; Campbell & Sawyer, 2007; Greenwood, Carta, Baggett, & Walker, 2007; Morisset, 1996).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저소득층의 13~32개월 영아와 어머니들에게 영아 어머니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일상생활 중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고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발달자극이 증가되었으며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절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의 경우 비록 저소득층에 해당되었으나 이미 산전부터 사회적 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프로그램에 자원할

정도로 참여 동기가 높고, 위험요인은 비교적 적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요인이 비교적 적은 집단에서의 효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더 많이 가진 집단에서의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처치 직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개별화 점검과정을 통해 수정해 가면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스스로 중재 전략을 유지하며 일상생활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취약한 양육행동 부분을 수정하기보다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대체하게 하였으므로 그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맞춤형 절차에 따라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회기 및 회기별 진행 기간, 진행시간에 융통성이 없이 모든 가정을 1시간 내외, 1주일 간격으로 8회기 진행하였다. 따라서 가정의 양육환경,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적으로 회기를 조정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개발된 프로그램이 맞춤형이고 예방적이면서 국내에서는 일반 아동의 연구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중재에 대한 반응적 접근 모델을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일반 영아나 발달적 문제가 있는 영아, 기타 환경적 위험요인을 가진 영아 등 다양한 대상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했을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진단도 검사도구 및 체계적 관찰 도구를 번안, 개발하여 함께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높은 신뢰도의 생태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민하영, 김경화(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 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25(6), 89-103.

박신진(2008). 영아기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 효과 연구. **아동학회지**, 29(5), 97-125.

이영(1985). 0~3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연세논총**, 21, 379-397.

이영(2009a, 연구 중). 0~3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K-HOME)의 타당화 연구

이영(2009b, 연구 중). 3~6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K-HOME)의 타당화 연구

이영, 김온기(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관계 및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20(3), 67-84.

이영, 김온기, 우현경(2006). **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영아놀이**. 파주: 다섯수레.

이지연, 광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정익중(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1-412.

Ackerman, B. P., IZard, C. E., Schoff, K., Youngstrom, E. A., & Kogos, J.(1999). Contextual risk, caregiver emotiona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ix-and seven-year-old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1415-1437.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1). *How Early Head Start programs are enhancing the lives of infant and toddler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insworth, M. D. S.(1990). 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theory and assessment relevant to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463-48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 Bell, S. M.(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 J. Connolly & J. Bruner (Eds.), *The growth of competence* (pp. 97-118). New York : Academic Press.
- Anastasiow, N. J.(1990). Implications of the neurobiological model for early intervention.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268-30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ggett, K. M., & Carta J. J.(2007). Using assessment to guide social-emotional intervention for very young children: An individual growth and development indicator(IGDI) of parent-child intervention. *Young Exceptional Children Monograph Series, 8*, 67-76.
- Baggett, K. M., Carta J. J., & Horn, E. M.(2002). *Indicator of parent child interaction user's manual*. KS: Juniper Gardens Children's Project, University of Kansas.
- Bakeman, R., & Adamson, L.(1984).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and objects in mother-infant and pe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5*, 1278-1289.
- Barnard, K. E.(1978).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manual*. Seattle : NCAST Publications.
- Barnard, K. E.(1979) *The nursing child assessment teaching manual*. Seattle : NCAST Publications.
- Barnard, K. E.(1994).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1*, 3-25.
- Barnett, D. W., Elliott, N., Wolsing, L., Bunger, C. E., Haski, J., McKissick, C., et al.(2006). Response to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extremely challenging behaviors: What it might look like. *School Psychology Review, 35*, 568-582.
- Barnett, M. A.(2008). Economic disadvantage in complex family system: Expansion of family stress model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145-161.
- Barocas, R., Seifer, R., Sameroff, A. J., Andrews, T. A., Croft, R. T., & Otrow, E.(1991). Social and interpersonal determinants of developmental risk.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79-488.
- Beckwith, L., Cohen, S. E., & Hamilton, C. E.(1999). Maternal sensitivity during infancy and subsequent life events relate to attachment representation at early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3-700.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oth, C. L., Mitchell, S. K., Barnard, K. E., & Spieker, S. J.(1989). Development of maternal social skills in multiproblem families : Effects o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03-412.
- Bradley, R. H.(1995). Environment and portention.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p. 235-26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 Bradley, R. H., Caldwell, B. M., & Rock, S. L.(1988).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A ten-year follow-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 852-867.
- Brody, G. H., Flore D. L., & Gibson. N. M.(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1197-1208.
- Bronfenbrenner, U.(1992).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al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인간발달생태학. 이영(역). 서울: 교육과학사. (1979년 원저발간)
- Burchinal, M., Vernon-Feagans, L., & Cox, M.(2008). Cumulative social risk,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in rural low-income communiti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8*, 41-69.
- Caldwell, B. M., & Bradley, R. H.(1984). *Home Inventory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rkansas: Little RockRock.
- Caldwell, B. M., & Bradley, R. H.(2003). *Home Inventory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rkansas: Little RockRock.
- Campbell, P. H., & Sawyer, L. B.(2007). Supporting learning opportunities in natural settings

- through participation-based servic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9, 287-305.
- Carr, E. G., Levin, L., McConnachie, G., Carlson, J. I., Kemp, D. C., & Smith, C. E.(1994). *Communication-based intervention for problem behavior: A user's guide for producing positive change*. Baltimore: Brookes.
- Conger, R. D., & Elder, G. H.(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The Iowa Youth and Families Project. In R. D. Conger & G. H. Elder Jr. (Eds.),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pp. 3-19). New York: Aldine.
- Conger, R. D., & Patterson, G. R.(1995). In takes two or replicate: Abecedarian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80-97.
- Crowe, L. K.(2002). *The language intervention toolkit*. Topeka, KS: Kansas Department of Social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Dishion, T. J., Shaw, D., Connell, A., Gardner, F., Weaver, C., & Wilson, M.(2008). The family check-up with high-risk indigent families: Preventing problem behavior by increasing parents'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9, 1395-1414.
- Duncan, G. J.(2003). Modeling the impacts of child care quality on children's preschool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 1454-1475.
- Dunham, P., & Dunham, R.(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14-420.
- Dunlap, G., Fox, L., Vaughn, B. J., Bucy, M., & Clarke, S.(1997). In quest of meaningful perspectives and outcomes: A response to five commentar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2, 221-223.
- Elardo, R., Bradley, R. H., & Caldwell, B. M.(197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6, 71-76.
- Eler, A., & Lord, E.(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276-301.
- Feldman, R., Eidelman, A. I., & Rotenberg, N.(2004). Parenting stress, infant emotion regulation,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riplets: A model for parent and child influences in a unique ecology. *Child Development*, 75, 1774-1791.
- Flavell, J. H.(1992). Cognitive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98-1005.
- Fox, L., Dunlap, G., Hemmeter, M. L., Joseph, G. E., & Strain, P.(2003). The teaching pyramid: A model for supporting social competence and preventing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8, 241-287.
- Fox, L., Vaughn, B. J., Dunlap, G., & Bucy, M.(1997). Parent-professional partnership in behavioral support: A qualitative analysis of one family's experien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Handicap*, 22, 198-207.
- Gassman-Pines, A., Yoshikawa, H., & Nay, S. L.(2006). Can money buy you l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entry into marriage. In H. Yoshikawa, T. L. Weisner, & E. Lowe (Eds.), *Making it work: Low-wage employment,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pp. 206-23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reenwood, C. R.(2008).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Future of Children*, 18, 132-159.
- Greenwood, C. R., Carta, J. J., Baggett, K., Buzhardt, J., Walker, D., & Terry, B.(2007). Best practices in integrating progress monitoring and response-to-intervention concepts into early childhood systems. In A. Thomas & J. Grimes (Ed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pp. 535-548).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Hemmeter, M. L., Ostrosky, M., & Fox, L.(2006).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early learning: A conceptual model for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35, 583-601.
- Kelly, E. B.(2005). Leaving and losing job: resistance of

- rural low income mothers. *Journal of Poverty*, 9(1), 83-103.
- Kelly, J. F., Morriset, C. E., Barnard, K. E., Hammond, M. A., & Booth, C. L.(1996). The influence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preschool cognitive-linguistic outcomes in a high-social-risk group. *Infants Mental Health Journal*, 17, 310-321.
- Kelly, J. F., & Zuckerman, T. G.(2003). *Promoting first relationships*. Seattle: NCAST-AVENUW.
- Kitzman, H., Olds, D. L., Henderson, C. R., Hanks, C., Cole, R., & Tatelbaum, R.(1997). Effect of 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 644-652.
-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ntymaa, M.(2003) Infant-mother interaction as a predictor of child's chronic health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 181-189.
- Mantymaa, M., Kaija, P., Luoma, L., & Tamminen, T.(2006).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 Associations with the close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of the mother.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 213-231.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9).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cLeod, J. D., & Shanahan, M. J.(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eisels, S. J., & Shonkoff, J. P.(2000). Preface.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es, M. D., & Peck, L. R.(2008). How poverty and segregation impact child development: Evidence from the Chicago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overty*, 12, 206-332.
- Moffit, T. E., & Caspi, A.(2001).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355-375.
- Morriset, C. E., Barnard, K. E., Greenberg, M. T., Booth, C. L., & Spieker, S. J.(1990). Environmental influences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 The context of social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27-149.
- Morriset, C.(1996). What the Teaching Scale measures : Insights from multiple studies. sites and samples. *NCAST National News*, 12, 1-7.
- Morrison, G. S.(1978). *Parent Involvement in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 Murray, L., & Cooper, P.(2007). The effects of maternal social phobia on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infant social responsivene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45-52.
- NCCP.(2002). Safety, Permanency, well-being. child welfare outcomes. *annual report*. Retrieved Dec. 28, from: www.acf.hhs.gov/programs/cb/pubs/cwo02/index.htm
- Olds, D. L., Henderson, C. R., & Kitzman, H.(1994). Does prenatal and infancy nurse visitation have enduring effects on qualities of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health at 25 to 50 months of life? *Pediatrics*, 93, 89-98.
- Raikes, H. A., & Thompson, R. A.(2008). Conversations about emotion in high- risk dyads. *Attach Human Development*, 10, 359-77.
- Ramey, C. T., Campbell, F. A., Pungello, E. P., Kainz, K., Burchinal, M., Wasik, B. H., et al.(2010). Early educational inter- vention, early cumulative risk, and the early home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young adult outcomes within a high-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81, 410-426.
- Ramey, C. T., & Ramey, S. L.(1998). Early intervention and early experience. *American Psychologist*, 53, 109-120.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 123-15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1985). Family and school influence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683-704.
- Sameroff, A. J.(1993). Model of development and developmental risk. In C. H. Zeanah (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pp. 41-68). New York: Guilford Press.
- Sameroff, A. J., & Fiese, B. H.(2000). Transactional regulation : The developmental ecology of early intervention.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intervention* (pp. 135-1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off, A. J., Seifer, R., Barocas, R., Zax, M., & Greenspan, S.(1987). Intelligence quotient scores of 4-year-old children: Social environ-mental risk factors. *Pediatrics*, 79, 343-350.
- Stevens, C., Lauinger, B., & Neville, H.(2009). Differences in the neural mechanisms of selective attention in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An even-related brain potential study. *Developmental Science*, 12, 634-646.
- Sumner, G., & Spietz, A.(1994). *NCAST caregiver/parent-child interaction teaching manual*. Seattle: NCAST Publications.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 Tomasello, M.(1990). The role of joint attentional processe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Sciences*, 10, 68-88.
- Tomasello, M., & Farrar, M.(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3.
- Turnbull, A. P., & Turnbull, H. R.(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 van den Bloom, D. C.(1994).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mothering on attachment and exploration: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sensitive responsiveness among lower-class mothers wit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5, 1457-1477.
- Van Der Heyden, M. A.(2005). Intervention-driven assessment practices in early childhood/early intervention: Measuring what is possible instead of what is presen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8, 28-33.
- van IJendoorn, M. H.(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Wachs, T., Uzgiris, I., & Hunt, J. M.(1971). Cognitive development in infants from different age levels and different environmental backgrounds: An explanatory investig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17, 283-311.
- Walker, D., & Greenwood, C. R.(2002). *Early communication indicator(ECI): Determining whether programs and children are on-track*. Unpublished Handout Presentation.
- Webster-Stratton, C., & Reid, M. J.(2008). A school-family partnership: Addressing multiple risk factors to improve school readiness and prevent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Retrieved February 1, 2009, from <http://www.incredibleyears.com/Library/paper>.

접 수 일 : 2011년 3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0일